

1954년 8월 12일 제19회 중의원 통상산업위원회

○ 일시: 1954년 8월 12일(목) 오전 11시 18분 개의

○ 발언자:

- 호아시 게이(帆足計)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참의원 의원, 경제안전본부 참여(參與), 경제부흥회의 간사장, 일본산업협의회 상무이사)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01904793X06219540812&spkNum=31¤t=6>

○ 해제(개요 및 특징)

군인들이 외로울 때 위안부를 찾는다는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잠깐 언급됨.

○ 주요 내용 번역

- ▷ 호아시 위원 “(전략) 또 저는 일본의 안전보장이라고 말하는데,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이상, 무엇보다 먼저 수폭시대(水爆時代)¹⁾에 종합적인 의미의 국가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여당과 야당은 좀 더 타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의논하고 충분히 양해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 정도가 옳다고 믿고 행동하겠지만,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국민의 절반 정도는 찬성하고 있고, 더욱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찬성하고 있기에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재군비(再軍備)를 한다고 해도 청년들은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헌법을 개악하여 재군비하려고 한다면 제가 재군비법안(再軍備法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재군비법안이란, 군대에는 대략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면 된다, 오늘날의 노인은 제법 건강합니다. 오래 산 만큼 건강합니다. 그리고 기계화 부대라고 해도 재교육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족이나 따님들은 가장 가까운 야전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미국 병사들이 외로울 때는 그 사람들이 위안부 지원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사회당의 배경이 되는 노동자나 청년들을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증거에는, 설령 재군비하더라도 일본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지 않는다는 결의를 우리가 논의했을 때, 개진당(改進黨)도, 자유당도, 사회당도 일치된 견해로 일본의 무력을 해외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에, 한 사람 예외가 있기는 했지만,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서로 이야기해 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무역 문제에서도 자유당 의원들이 함께 들어가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수폭 실험 금지에 대한 경고 결의안도 예상외로 자유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성했습니다.”

1) 수폭(水爆)은 수소폭탄의 줄임말.